

고흥군, 재순천향우회 찾아 귀향·귀촌 홍보 나서

찾아가는 귀향·귀촌 홍보 및 맞춤형 상담 눈길



귀향 귀촌 홍보 부스 운영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3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재순천 고흥군향우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해 귀향·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장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향우들에게 귀향·귀촌 지원정책과 주거 및 정착 지원사업,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귀촌을 희망하는 향우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홍보부스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실제 귀향·귀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과 지역 정보를 안내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고흥군은 귀향·귀촌 희망자를 위한 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향우회 교류 확대와 지역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빈틈없는 민방위 대비 태세로 국무총리 표창

보성군은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비상 대비 및 민방위 활동 진흥 유공'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민방위 업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됐다. 보성군은 민방위 대원 편성·관리와 교육·훈련, 시설·장비 유지·관리, 민방위훈련 실시 등 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역량을 높이고 관련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인력과 시설을 아우르는 대비 태세를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보성군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원들이 맡은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을 운영했다. 또 비상소집 대상자의 연락망과 응소 현황을 점검해 유사시 대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 실시

해남군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정기적인 법정허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년(약수년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점포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저울 저울, 전기식 저울저울 등)이다.

2025년과 2026년에 제작되어 개별적으로 검정을 받은 저울과 가정용·교육용·참고용·판매용 저울, 체중계 및 재료 무게 확인이나 소분을 위해 사용하는 저울 등은 이번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각 읍면사무소의 안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종욱 기자

진도,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역량강화 교육

진도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범사업 공모 준비를 위한 부서 간 협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의 강사로는 노승복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초청했다. 노승복 센터장은 청양군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의미와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주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진도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가영 기자

장흥 파빠용Zip, '한글 놀이터, 파빠용Zip' 개최

장흥 파빠용Zip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글 놀이터, 파빠용Zip'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학의 고장 장흥의 지역적 특성과 한글을 접목해 어린이와 가족이 글자를 직접 쓰고, 그리고, 맞으며 한글을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100글자' 손글씨 전시, 자음·모음을 활용한 그리기 체험, 한글날 OX퀴즈, '또 다른 나에게 쓰는 편지', 세종대왕 복식 체험 및 포토존, '한글 토크!' 버블쇼, 달고나 만들기 체험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한글 놀이터, 파빠용Zip' 행사 정보와 북토크 사전 신청은 파빠용Zip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빠용Zip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10월 추천 관광지 '생일도 둘레길' 선정

"선선한 가을, 푸른 바다와 숲길 따라 생일도의 매력 만끽하세요!"



완도군 10월 추천 관광지 여행 후기 이벤트 안내 포스터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이 10월 추천 관광지로 푸른 바다와 기암절벽 등 해안 경관이 어우러진 '생일도 둘레길'을 선정했다.

'생일도 둘레길' 바다와 숲, 마을이 이어지는 코스로 서성항에서 시작해 해안도로를 따라 용출 갯돌해안, 금머리 갯길, 금곡 해수욕장, 금곡마을까지 총 10.6km이며,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생일도 둘레길은 바다와 숲을 곁에 두고 천천히 걸으면 절로 힐링이 되는 여행지다. 둘레길이 시작되는 서성항에는 '생일도'라는 이름답게 초대형 생일 케이크 조형물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특히 해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숲에는 계절마다

야생화의 향기가 퍼져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또 어촌 마을을 지나면서 섬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가까이 느낄 수 있다. 한편 생일도는 해발 483m의 백운산과 용출리 갯돌밭이 장관을 이루는 섬으로 2016년도에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군은 10월 추천 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행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생일도 둘레길을 방문한 뒤 완도문화관광 누리집에 후기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완도 특산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완도군은 생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안 경관과 섬마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가영 기자

